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공동 대응, 한-인도 나프타 공급망 협력 체계 논의

- 나프타(韓의 나프타 5위 공급국), 석유화학 등 핵심 공급망 안정화 협력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이번 한·인도 정상회담 계기 인도 석유 천연가스부 하르딕 싱 푸리(Hardeep Singh Puri) 장관과 면담을 갖고, 나프타를 비롯한 에너지·자원 및 에너지 수송 관련 조선·해양 분야의 후속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양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 부속서로 발표된 「한-인도 에너지·자원 안보 공동선언문」을 마중물 삼아,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진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 선언문은 이번 중동 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에너지·자원 확보 양자 협력을 최초로 추진하는 정상급 공동선언문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인도는 우리의 제5위 나프타 수입국('25년 13.0억불, 211.4만톤)이며, 우리는 인도의 제1위 윤활유 기유 수출국('25년 9.0억불, 115.0만톤)으로서 양국은 그간 석유·화학 산업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형성해 왔다. 또한, 한국은 세계 3위(293억불), 인도(150억불)는 세계 4위의 LNG 수입국('24년 기준, 월드뱅크 통계)으로서,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의 수요를 견인하는 핵심 소비국인 동시에 국제 가스 시장의 가격 변동과 공급 불확실성에 노출된 공통의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최근 이란 전쟁 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나프타 및 석유화학 원료에 대해 상호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요 LNG 소비국으로서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인도 측이 수송분야에서도 자립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조선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한국 석유화학 기업들을 위한 인도산 나프타 물량 확보 및 중장기 공급 협력체계 구축 등을 인도측에 요청하였다. 인도석유공사

(IOCL)를 비롯한 인도의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과 한국 기업 간 나프타 거래를 위한 민간 간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향후 인도의 성장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인도에 공급하여, 양국이 상호 취약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아울러, LNG 소비국으로서 글로벌 가스 시장의 안정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매자의 관점을 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소 현대화, 인력 양성, 기술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조선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산업부와 인도 석유천연가스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양국 실무진 간 협의를 통해 협력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인도 에너지·자원 안보 공동선언문 >

Joint Statement on Energy Resource Security between the ROK and India

- **(배경)**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실현을 위한 공동의 비전 재확인 및 최근 정세로 인한 에너지·자원 공급망에 대한 우려 공유
- **(양국 교역 현황)** 인도는 한국의 나프타·석유화학 원료의 핵심 공급국
한국은 인도의 석유제품 및 윤활기유 분야 주요 공급국
- **(핵심합의 사항)** ▲나프타 등 핵심 석유화학 원료의 개방적 교역 유지를 포함한 에너지 자원 공급망 협력, ▲주요 LNG 소비국으로서 협력,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해양인프라 협력
- **(협력 방향)** ▲에너지 공급망 회복 탄력성 강화, ▲역내 협력 심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개방적 에너지 교역을 위한 역내 파트너 국가와 협력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민문기 (044-203-4910)
		담당자	사무관	강홍구 (044-203-4911)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관 나프타 수급 TF	책임자	팀 장	김종락 (044-203-4909)
		담당자	사무관	최영빈 (044-203-4935)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	책임자	과 장	한주현 (044-203-5230)
		담당자	사무관	박성배 (044-203-5216)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	책임자	과 장	이디도 (044-203-4330)
		담당자	사무관	허은재 (044-203-4335)

India- Republic of Korea Joint Statement on Energy Resource Security

1. The Republic of In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ia") and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are Special Strategic Partners with a common vision for an open, inclusive and prosperous Indo-Pacific region.
2. The central pillar of our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is a long and trusted economic and energy resource partnership, grounded in a shared commitment to open markets and rules-based trade, which underpins our prosperity and economic security. Reaffirming these shared principles and understanding the impact of current situation on industries and markets is essential at this time.
3. We endeavour to advance our energy resource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through the India-Kor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and relevant bilateral frameworks. India is a key supplier to Korea of naphtha and other petroleum feedstocks, while Korea is a leading supplier to India of petroleum products and lubricant base oils.
4. We are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to strengthen energy resource supply chain resilience, including through deepening regional cooperation, accelerating energy transition and supporting open trade arrangements for energy resources. We recognized the need to explore closer collaboration as major LNG consumer to enhance market stability, transparency, and better reflect buyers' perspectives.
5. We recognize our shared commitment to resilient trade in energy. We recognize that resilient maritime infrastructure, including shipbuilding, is critical to ensuring the energy security of both countries. We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a robust and diversified shipbuilding ecosystem, in supporting the safe, reliable and efficient transportation of energy resources.
6. Against this backdrop, India and Korea endeavour to:
 - maintain a stable, secure and reliable supply of energy resources to each other, including efforts by both countries to maintain open trade in naphtha and other petroleum products; and cooperation in entire energy value chain.
 - explore closer collaboration among LNG-consuming countries
 -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shipbuilding sector, including though not limited to, setting up shipyards in India, shipyard moderniz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technology partnership.
7. India and the ROK call on regional partners to join in ensuring global energy resource supply chains are kept open, for the benefit of the security and prosperity of our peoples.